

# 럭키, 말레이 지방알콜공장 준공

지방알콜 3만톤 · 글리세린 5000톤 ... 세제원료 수직계열화

럭키(대표 최근선)가 HOM(Henkel Oleochemicals Malaysia), 新日本理化和 합작, 말레이시아의 콜랑 공업단지 인근 1만여평 부지위에 건설한 지방알콜공장을 준공했다.

생산규모는 지방알콜(Fatty Alcohol) 연 3만톤, 글리세린(Glycerine) 5000톤이다.

이번 합작공장 완공으로 럭키는 팜 · 야자의 주산지인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천연지방알콜을 생산해 국내 천연세제 · 샴푸 · 린스 제조에 사용, 세제원료에서 제품까지 수직계열화 체제를 갖추어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.

팜 · 야자유를 원료로 하여 메틸에스테르 공법을 거쳐 생산되는 지방알콜은 샴푸 · 세제 · 치약 등 계면활성제 원료는 물론 화장품 · 플라스틱 유화제 · 섬유 · 피혁 · 금속 처리제 등 정밀화학 원료로 폭 넓게 사용되는 제품이다.

한편, 럭키는 아시아 6건, 미주 3건, 중동 1건, 동유럽 1건 등 총 11건의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, 미주지역의 연구 및 판매법인을 제외한 8개사업중 이번 지방알콜공장 준공으로 4개의 해외 합작공장이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.

<화학저널 1992/10/1>